



여수 김석철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강원훈



장성 반정모



장흥 김종민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광양시, 산단 근로자 통근버스 운영

2019년까지 월~토요일 출퇴근 시간 각 4회 운행 복지증진·고용환경 개선·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광양시가 25일 시청 앞 광장에서 출퇴근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 통근버스 개통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개통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과 송재천 광양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방재성 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장양선 전국플랜트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장, 민관산학실무협의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광양국가산단과 울촌산단 근로자들은 대중교통수단의 부족한 노선과 긴 배차시간으로 출퇴근시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난 3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양사무소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 합동공모 사업'에 공모·선정되어 국비 2억5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임철을 통해 전세버스 사업자를 선정하고 통근버스 노선에 대한

한 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해 출퇴근시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지난주에 노선별 시범운행을 마쳤다.

무료 통근버스 운영은 2019년까지 월~토요일 출퇴근 시간에 각 4회로 운행하며, 중마동과 광영동 광양을 산단 근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무료 통근버스 운영으로 총 21만 명이 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140명의 취업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희 투자유치과장은 "산업단지내 공동 통근버스 이용으로 산단 주변지역의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 근로자들의 접근성 용이로 신규 투자채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으로 산단 입주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광춘 기자

광양경제청, 상반기 1기업 1도우미 완료

맞춤형 기업 밀착 관리로 기업애로 해결사 역할 특출

광양민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권오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기업 경영동향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2017년 상반기 1기업 1도우미제'를 내실 있게 마쳤다.

1기업 1도우미제는 광양경제청 직원을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한 기업 1대1로 매칭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대표적 기업지원정책 중 하나다.

도우미로 지정된 직원들은 매칭된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주기업별 전담 지원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도우미 활동결과 총 11개 기업에서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설치·보수 8건, 방역 및 환경정비 관련 4건 등 총 12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되었다. 광양경제청은 접수된 애로사항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것은 담당 도우미 책임하에 즉각 처리하였으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 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통보해 해결할 계획이다.

최근 기업의 경영여건과 관련된 동향도 다수 파악되어 기업지원정책 수립 및 유관기관과의 정책공조에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기업의 경영여건은 장기적 경기침체로 경영 여건이 녹록지 못하지만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구안 마련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광양경제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고 내실있는 1기업 1도우미제 운영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동부경제본부장=김승호 기자

화순군, 복지시설 통합 운영 업무 효율성 제고

화순군은 여러 곳에 산재된 시설의 통합 운영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차료를 절감하기 위해 가정 화순군 회합센터를 건립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12억 5천만 원을 들여 3층 규모의 구 한진사옥을 리모델링(998㎡)하고, 2층 규모의 별동을 증축(330㎡)해 화순읍내에 산재된 지역자활센터와 각종 사업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드림스타트, 다문화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복지시설을 회합센터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공사를 시작한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5월 준공해 지역자활센터가 입주했다.

조만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드림스타트 다문화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별동 증축공사는 지난해 2월 착공해 오는 8월 준공 예정이다.

증축공사 준공 뒤 도시락사업단, 스마트세탁, 집수리사업단 등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이 들어선다.

화순군에서 운영 중인 화순지역자활센터 및 사업단은 대부분 민간소유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 연간 5천여 만원의 임대료를 지출할 뿐만 아니라 화순읍내에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관리상의 어려움이 많았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교육지원청, 中 문화 체험 국내 캠프

내일까지 세한대학교 및 공자아카데미서 실시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윤종식)은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하여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어 기본 회화 학습을 바탕으로 중국의 문화를 테마별로 다양하게 체험하는 '2017 중국 문화 체험 캠프'를 세한대학교 및 공자아카데미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프에는 관내 학교장 추천

을 받은 초등학생 60명과 중학생 40명의 학생들이 참가 하였다.

학생의 중국어 수준과 희망을 반영한 학생 맞춤형 회화 학습과 중국 생활 문화 중심으로 실제적인 체험이 되도록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중국 교육부가 인증하는 원어민 교사 및 협력교사를 통해 인사, 자기소개 등의 중국어 기본 회

화를 습득하고, 공자아카데미 각 체험관을 주별별로 순회하면서 중국의 음식·생활·놀이·전통 문화를 실습활동을 통해 체험하게 된다.

윤종식 교육장은 "의미있는 캠프 활동을 선택한 학생들을 칭찬하면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은 의사소통 능력으로 인접 국가인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습득하는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든든한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전남동부경제본부장=김승호 기자

순천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2개 분야 최고상



순천시는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순천시는 또 지역신용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 부문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해 2개 부문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최고의 상을 수상

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성과를 알리고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순천시는 옛 농협창고를 개조하여 청년들의 창업을 유도하는 청춘창고, 청춘우정, 이렛장 아시안, 웰리지 슈 개장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성과를 거뒀고, 순천형 청년정책 비전 선포 등 일자리 정책 수립 업무 극대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청년 창업·창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순천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활로를 모색하고,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근로자 무료

통근버스 운행 및 산단 내 맞춤형 부부위 위한 직전어린이 집 설치 운영 등 일자리 목표를 훨씬 초과하는 137%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순천시는 청년 창업과 교육, 문화를 결합해서 일자리 창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며, "정부는 다양한 각도로 청년취업과 빈곤층 보호에 나서겠지만 일자리 늘리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되지 못하고 미중물 역할을 할 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모두 함께 이뤄야 하고, 특히 지자체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나주시, '신호대기 그늘막 쉼터' 주민 호응

"신호를 기다릴 때 시원한 그늘에 잠시 쉬어주세요." 나주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쳐가는 주민들을 위해 세심한 배려 행정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나주시의 배려 행정은 다름 아닌 '그늘막 쉼터' 설치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그늘막 쉼터가 오는 8월말까지 운영된다.

캐노피 천막으로 만든 그늘막 쉼터는 나주시가 한 여름 따가운 햇볕에 무병비로 노출된 보행자들을 열사병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주 원도심 4곳, 영산포 권역 2곳, 혁신도시(빛가람동) 3곳 등 총 9곳에 설치했다.

그늘막 쉼터는 신호 대기시 시원한 그늘 제공을 위해 햇볕 노출이 많은 횡단보도 인근에 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주시는 주민 호응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그늘막 쉼터를 시내 중심지에 이어 각 읍·면·동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한 그늘막 쉼터는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나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설치했다.

나주 원도심 거주하는 자영업자 박모(46)씨는 "그늘막 쉼터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범 행정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주민 배모(51)씨는 "한 여름 땀을 가려주는 그늘막 쉼터는 사막의 오아시스 못지않게 반가운 대상"이라며 "주민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행정 행위"라고 극찬했다.

나주시는 천막 제작의 그늘막 쉼터가 무너지거나 강풍에 날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장시간 근로 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